

겨울철 대형화재 위험 전통시장 한달여만에 다시 가보니

소화기 여전히 없고 통로는 물건 가득

양동·말바우시장 곳곳 '안전불감' 소방차 진입로에 불법주차 버젓이

광주지역 재래시장이 겨울철 잦은 전열기 사용과 미흡한 소방 시설 등으로 대형화재로 인한 위험성이 높음에도, 예방 대책 마련은 더디기만 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 상인들은 여전히 '영세성'을 내세워 안전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자치단체들은 예산 부족으로 조속하게 개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0일 찾은 양동시장의 경우 점포 또는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돼 있어야 할 소화기를 찾기 힘들었다. 대형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11월 4일자 7면>이 제기된 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와 서구가 긴급 소방·전기·기계·건축 부문 등을 대상으로 안전합동점검을 벌였지만 한 달 전 찾았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무너진 천장을 교체한 것 외에 소화기 설치 장소를 가린 채 영업을 하는 옷가게, 소화전을 가판대로 막아놓은 채소·생선 가게들, 점포에서 내놓은 물품들로 꽉 막힌 좁은 피난 통로, 컨베이어 벨트로 막혀 버린 비상 통로, 소방차 진입로 불법 주차차 등은 여전했다. 소방당국이 안전 점검을 한 것인지, 시정 여부를 확인한 것인지조차 의문이 제기될 정도였다.

자치단체의 대응도 미온적이긴 마찬가지다. 서구는 화재 취약시설인 양동시장의 화재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시설 개선 사업은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점포(1330개) 주변에 585개(5억4000만원) 소화기를 설치하고 LED 조명 설치 등 전기 시설(6억원)을 개선기로 하는 등 11억4000만원에 이르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계약이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현장보다 행정을 우선하는 관료 중심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구 지역의 재래시장인 말바우 시장도 바뀌지 않고 있다. 시장 내 상인(1642명) 수는 가장 많지만



지난 9일 밤 11시 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 채소가게(노점)에서 연탄불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초기진화를 한 뒤 잔불을 제거하고 있다. 이날 불은 면적 33.1㎡와 집기 등을 태운 뒤 10분 만에 진화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00개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500m 구간에는 고차 3대의 소화기만 설치됐고 상가 내 설치된 백열등 사이로 비닐 천막 사이에서 빗물이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고 있었다.

북구의 말바우시장 현대화사업(24억 3200만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됐지만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상인들은 소화기(22개)·소화전(4개소) 설치 공

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대형 화재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처지다.

말바우시장 내 한 상인은 "아케이드가 설치됐지만 2개월째 가로등이 들어오지 않아 낮에도 어둠 속에서 장사한다"며 "이왕 할 것이라면 하루빨리 마무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긴급 신고전화 통합

112·119 등 4종 이내로

대교수(경찰행정학과)는 이날 공청회에서 20여 종의 긴급신고전화를 우선 '긴급 신고'와 '비긴급신고'로 나누고 각각 단일 번호 또는 이중번호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

시할 예정이다.

긴급신고에는 현재 국가가 '긴급 통신용 전화'로 지정한 112(범죄), 119(화재, 구조, 구급), 122(해양), 118(사이버테러) 등이 포함된다.

이 교수는 긴급신고번호로는 미국의 911처럼 단일번호를 쓰거나, 부처 간 이견 조정의 어려움과 비용 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119와 112의 2종으로 부분 통합하는 방안을 내놨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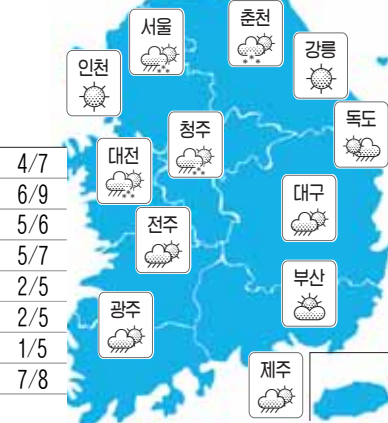
해돋이 07:30 해질 21:51
해짐 17:21 달짐 10:40

출근길 빗방울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비가 내린 뒤 낮부터 구름 많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비온뒤 4/6	보성	비온뒤 4/7
목포	비온뒤 4/7	순천	비온뒤 6/9
여수	비온뒤 6/9	영광	비온뒤 5/6
나주	비온뒤 4/6	진도	비온뒤 5/7
완도	비온뒤 6/8	진주	비온뒤 2/5
구례	비온뒤 4/8	군산	비온뒤 2/5
강진	비온뒤 5/7	남원	비온뒤 1/5
해남	비온뒤 5/8	홍산도	비온뒤 7/8
장성	비온뒤 4/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서	북서 1.0~2.0	북서	1.5~2.5
남부	남서	북서 1.5~3.0	북서	2.0~3.0
남해	남서	북서 0.5~1.5	북서	1.0~2.0
서부	남서	북서 1.0~2.5	북서	1.0~2.5

생활지수

동파	25
운동	10
빨래	20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9:59	04:40
	22:40	17:21
여수	11:57	05:26
	23:56	17:59

주간 날씨

12(금)	13(토)	14(일)	15(월)	16(화)	17(수)	18(목)
-1/4	-2/3	-3/5	-1/6	-2/2	-4/1	-4/2

광주 북성중 이설 무산

시의회 "줄속 추진" 제동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북성중학교 이설이 무산됐다.

시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와 교육과정 애로 등 이설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시의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줄속 추진됐으며 제동을 걸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북성중 이설 동의를 표결 끝에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부결했다.

이에 따라 북성중은 현 위치에서 학교 운영을 계속하게 됐다.

시의회 교육위는 이날 동의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며 성급하고 줄속적인 이설 추진은 지역 공동화만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우세했다.

문성필 의원은 "오는 2019년까지 북성중 주변에 4200여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 따라서 그만큼 학생 수 증가도 예상된다"며 "상황변화에 대한 철저한 분석도 없이 근시안적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김영남 시의원은 "도심 공동화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전반적인 추세인데, 그때마다 학교를 이설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설 반대를 주장했다.

/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초등 시험문제 학원 유출 의혹 제기

광양서...도교육청 진상 조사

광양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학원에 유출되면서 학교와 교육당국의 구멍 뚫린 시험관리시스템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1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양 A초교가 최근 실시한 2학기 기말고사에서 3~6학년 수학문제 각 25문항 전 분

량이 인근 B학원에서 낸 문제와 동일,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학원 측은 시험 전 날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어 한 뒤 곧바로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 측은 "인터넷에 있는 예상문제를 봤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문제가 불거지자 곧바로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박정욱기자 jwpark@



비상계단 막은 상자더미와 컨베이어벨트.



텅 빈 소화기 설치 공간.



소방차 진입 방해하는 불법주차.



비상시 피난 어렵게 하는 통로 적치물. /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각종 재난의 초기대응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20여 종에 이르는 국민안전 관련 신고전화를 4종 이내로 통합하는 방안이 정부 공청회에서 공개된다. 국민안전처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긴급신고전화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한다. 긴급신고전화 통합방안 연구를 수행한 이성용 계명

엄지의 제왕 1
탈모, 노안, 나잇살, 회춘을 위한 특급 처방전

👍MBN <엄지의 제왕>이 직접 검증한
'탈모, 노안, 나잇살, 회춘'을 위한 특급 처방전!

출간 즉시 화제작

평생 병(病) 없이 건강하게 사는 **실생활 건강법**의 모든 것이 공개된다!

MBN <엄지의 제왕> 제작팀 지음 | 서재필 김수 | 정가 17,000원

천기누설 시리즈
천기누설 1~9권
MBN 천기누설 제작팀 지음 | 전권 151,000원

MBN <천기누설> 제작팀이 1회부터 85회까지 소개한
몸에 기적을 일으킨 200여 종의 약초 특별판!

천기누설 약초보감
MBN <천기누설> 제작팀 지음 | 정가 85,000원

인터넷 서점(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 및 전국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문의 070-7516-2069